

2011 문화계 결산

① 미술

올해 이 지역 문화계는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작가들의 활발한 해외 활동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성과를 거뒀다.

또 광주 출신 소설가 정유정씨의 '7년의 밤'(은행나무 펄버)이 '올해의 책' 대상에 뽑히는 등 문학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. 광주문화재단이 제작한 '자스민 광주'는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다.

지역 문화계의 지난 1년의 성과와 발전 과정을 ▲미술 ▲공연 ▲문학·문화재 ▲문화행정 등 4회로 나눠 돌아 본다.

▶올 한 해 지역 미술계는 질적·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. 사진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모습. (광주일보 자료)



광주디자인비엔날레, 경쟁력 갖췄다

미술계 가장 큰 성과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세계 디자인계에 의미 있는 전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. 광주 도심 곳곳을 물들인 어번폴리도 광주의 아름다운 미술 자산이 됐다.

한 번 미술 비엔날레만을 개최했던 이들 국가들이 미술과 디자인비엔날레를 번갈아 여는 광주를 벤치마킹, 디자인비엔날레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.

'어번폴리' 국내외 건축계 관심, '키스 해링'전 등 인기

젊은 작가들 전시 기회 감소 다양한 지원책 마련돼야

◇디자인 전시를 이끌다=이번 디자인비엔날레(9월2일~10월23일)는 25만7000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52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. 그동안의 완성품 중심의 전시에서 탈피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의 근본적인 의미와 우리 생활 속 디자인의 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.

모 전시가 관람객을 행복으로 안내했다. ◇젊은 작가들은 여전히 '추위'=무안 군립 오송우미술관과 함평군립미술관이 문을 열어 문화 소외지역에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졌고, 광주 외재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 등을 열었다.

우리 문화유산이 오롯이

22~23일 '디지털콘텐츠 개발사진전'

광주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. (사)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(이사장 박경환)은 오는 22~23일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'광주문화재 디지털콘텐츠 개발사진전'을 연다.



김상국 작 '우일선 선교사 사택'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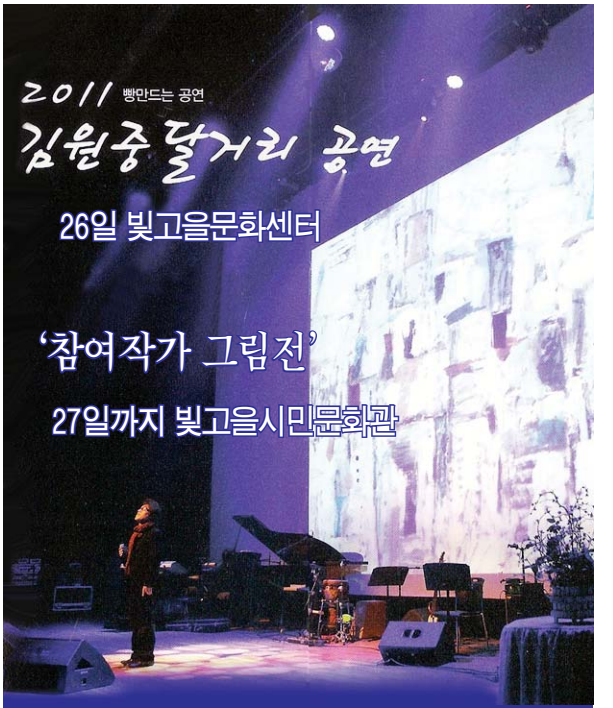
우음폭탄 그녀들이 돌아왔다

'뮤지컬 년센세이션' 24~25일 문예회관

유쾌한 수녀님들이 돌아왔다. 뮤지컬 '년센스'의 다섯번째 시리즈 '뮤지컬 년센세이션'이 24~25일 오후 3시·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.



최재영 작 'Nature A'



3월에는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. 4월에는 빨간 자전거와 은행나무가 어우러졌다. 8월에는 환한 웃음을 터트린 여인 사이로 반딧불이 반짝였다. 10월에는 붉은 흥시감이 주렁 주렁 매달렸다.

가수 김원중씨가 올 3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열었던 '뽕만드는 공연-김원중의 달거리'는 작곡가와 클래식 연주자, 국악인, 가수, 시인과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 손님이 만들어낸 행복한 공연이었다.

무대를 더욱 빛냈던 건 광주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작업한 그림들, 커다란 영상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낸 그림들은 단순한 무대 배경 장치를 넘어서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. 공연장은 금세 컬러리로 변신했다.

'가수 김원중 달거리 공연 참여작가 그림전'이 20일부터 27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다.

이번달 테마는 한해를 보내며, 새로운 해를 맞는 의미를 담아 '응, 너 참만났다(잘가라 토끼야)'로 정했다. 초대 손님으로는 여수 지역 초등학생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른다. 이번달 무대를 맡은 조각가 고근호씨가 유쾌한 조각작품들을 내놓았고 윤진철·김현옥·주홍씨 등 늘 무대에 섰던 이들이 마지막 공연도 함께한다.

입장료는 따로 없으며 공연을 관람후 모금함에 정성을 보태면 된다.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뽕공장에 보내진다. '달거리'는 2012년 3월부터 다시 이어진다. 문의 010-2943-8500. 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Advertisement for '다자녀 행복 카드' (Multi-child Happiness Card) by Jeolla Namdo. The ad features a family photo and a child with a balloon. Text includes: '우리 집만의 행복한 특권' (Special privilege for our family), '3명 이상 자녀 가정을 위한' (For families with 3 or more children), '다자녀 행복 카드' (Multi-child Happiness Card), '전라남도에서 양육비 경감을 위해 드리는 문화·경제적 할인 혜택' (Cultural and economic discount benefits provided by Jeolla Namdo to reduce child-rearing costs). Contact info: http://jnhappy.bccard.com, 061-286-5853.